

홍이식 군수 취임 1년...확 달라진 화순

## 소통으로 화합 다지고 기업유치 일자리 확충

### 농촌 뉴타운 기공 명품 전원도시 기틀 백신톡구 지정 기업 서비스 전국 2위

광주와 인접하면서 각종 특성화 시책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화순군정이 지난 1년 사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1년 전 홍이식 군수 취임과 함께 선거 때마다 빛어진 후유증으로 길라ｚ였던 지역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괄목할 만하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로 지역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화순군정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역화합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군은 '소통과 화합'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흥 군수 취임 직후 화합의 시발점으로 군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내 사회단체장, 전직군수와의 간담회도 열어 군민화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이끌어 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군수에게 직접 보고해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직소민원담당'을 신설, 양방향 소통으로 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참여의식을 높였다.

지난해 군수가 직접 국비유치단을 이끌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243억 원 증가한 744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철저한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160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최상의 복지'인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167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충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부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했고, 지역내 경로당 485개소에 어여쁜 100% 설치했으며 소외계층 1926가구를 신규로 발굴해 지원했다.

또 지역내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고등학교 등..하고 서버버스 운행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21개 사업에 42억원을 지원했다.

젊은 인력유치로 '젊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농촌 뉴타운' 기공을 시작으로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5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과학 영농 기술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화순 생활의 약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특히 백신톡구지정을 비롯한 규제완화 지역으로서

의 격에 걸맞게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전국 2위를 차지해 기업 하기 좋은 고장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65억원을 투입해 공공분야에 공공근로, 전통시장 육성, 노인일자리 등 43개 사업 1669명, 민간분야에

18개 사업 258명 등 61개 사업에 연인원 23만 4934명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등 완벽하게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를 이용, 18개 대회를 개최해 4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1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의 성공 개최는 화순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화순간 대중교통 버스 통합 환승할인제'를 비롯해, 심야에 귀가는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화순 야간 서버버스'운행은 대표적인 주민 서비스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화순군은 지난 1년 동안 화합과 지역경쟁력 높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화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홍이식 화순군수



### “화합 속 삶의 질 높이는 복지 공동체 만들겠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7일 취임 1년을 맞은 홍이식 화순군수는 “화합 속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공동체 건설이 군정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1년 전 취임식에서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며 서로 통하고 결국 대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보합대화’(保合大和)를 유독 강조했던 홍 군수는 “잘사는 화순을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며 지역화합을 위해 힘쓸

것을 거듭 다짐했다.

우선 흥 군수는 군청 내의 소통과 화합실천을 위해 힘써 왔다. 군수 권한을 부서장에게 대폭 위임으로써 공직자가 소신 있는 책임행정 구현토록 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민원행정분야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군수와 공무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취임 2년차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3년차에는 복지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순군은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 ▲택지 개

발, ▲자전거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대표축제 개발 ▲FTA 대비 농업 경쟁력 제고 등 2012년 13대 군정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잘사는 화순 건설을 위한 군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본 일초의 삶은 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홍 군수는 “전 공직자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펼쳐 행복한 화순, 풍요로운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30년 전통의 한정식  
**오찬정식 15,000원**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힐스테이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정동진&낙산사&양떼목장 기차여행

무궁화호(무박 2일)

5월 4일(금)

저녁 8시30분 광주역출발

1인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기차여행은 각역에서 토요일 가능합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국제선 할인 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http://www.daewontour.com)

### 섬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 365,000원~ ₩ 385,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	₩ 12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 160,000원~

### 해외여행

2일 대마도 크루즈	₩ 239,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 58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 99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훼리(매주목)	₩ 650,000원~
4일 청도 위동훼리(매주토)	₩ 33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훼리(매주목)	₩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훼리(매주화)	₩ 460,000원~
5일 장가계 MU	₩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 1,100,000원~
4일 황산 MU	₩ 670,000원~

## 장흥군 한방 육아교실 운영

건강가족 지원센터와 협약...매주 9회 강좌



장흥군은 지난 25일 한방허브(HUB)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장흥 건강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김영석)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과 건강가족 지원센터는 다음달부터 상호 연계해 한방허브사업의 기본 5대 사업중 하나인 '한방 육아교실'을 매주 화요일 총 9회 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방 육아교실은 관내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관리 ▲오감 신체놀이(전래활동 놀이활동)체험 ▲음식태교와 모유수유 ▲성장 시기에 따른 육아법 교육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참여작가들은 27일 강진을 방문해 다산초당과 백련사·백운동별사 등 지역 문화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강진서 한국 여류화가협회 순회전

아트홀 개관 1주년 기념 27일~5월 13일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사)한국 여류화가협회 3번째 순회전이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17일간 강진아트홀 전시실과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강진군이 오는 5월 11일 아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다.

출품작은 박순의 '내 마을의 풍경' <사진> 등 35점이다. 참여작가는 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전명자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준영·김수정·임순필·국명숙·김경은 등 총 35명이다.

참여작가들은 27일 강진을 방문해

다산초당과 백련사·백운동별사 등 지역 문화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송현~남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안전조치 없이 건물 철거 위험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채 건물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외줄 비계에 매달려 작업을 해 자칫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송현~남평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위해 남평을 오거리 공사장 주변 도로에 위치한 건물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이 차량통행이 잦은 오거리이고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나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5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인 데도 인부들이 쓰러져가는 외줄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 A씨는 “철거과정에서 20여명에 주차된 차량까지 먼지가 내려앉아 항의했지만 철거업체에서 오히려 이를 틈장을 놓았다”며 “수일째 건물철거 작업이 강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전남도는 현장파악조차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